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감사와 찬양 드리며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다같이
대표기도		다같이
*성경봉독	마 6:24	조윤
말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천국은 마치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기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였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기에 빨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 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정결케 하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한, 그 순종을 통해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으시는 예배되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찬양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과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마 6:24)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덕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인 재물, 즉, 돈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해 성경은 긍정적인 말씀과 부정적인 말씀들을 함께 합니다. (신 8:18, 시 16:5, 전 5:19 vs 딤후 6:10, 막 10:25, 마 6:19-20)**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은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기이자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재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해 나가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경은 재물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의 사용처가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돈’으로 노동력을 구매하여 상품과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모든 물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속에서는 돈이 안되는 개인이나 기업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러한 풍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가치를 정하는 세상은 결코 성경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추수관련 율법, 소작농 비유) 사실, 자본주의가 세상의 경제 원칙이 된 것은 전 인류역사 중 굉장히 최근에만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불변의 진리도 아니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심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비성경적 요소들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재물에 관한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마 6:24) 이 본문을 보면 중요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우선,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것이 우상’이라는 팀 켈러의 정의대로,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되면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mammon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본문말씀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는 ‘내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저는 이 선택에서 꼭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는 허락된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본문말씀의 병행구절인 눅 16:10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맥상 여기서 적은 일은 재물이고, 큰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우리가 재물을 잘 통제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노예로 다루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믿음의 뿌리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위기 앞에서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근원적인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왕에게 보내어 큰 가뭄이 올 것을 예고하라고 하신 후에, 그에게 요단 강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 6장)

두번째,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하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땅에 있는 은행과 하늘 나라에 있는 은행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은행에는 좀먹고, 녹슬고, 도둑이 있지만 하늘 나라에 있는 은행에는 그것들이 없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 두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못 드리는 재물을 뜻합니다. 땅의 것에 굳게 엮여져 있는 재물입니다. 반면,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하나님 사역과 이웃에게 베푸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 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재물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전세계가 부의 불공평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을 케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동시에 그들을 돕는 손길들에 집중하십니다. (눅 6:38)

말씀산책

마지막은, **온전한 십일조 생활**입니다. 십일조는 이미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본’입니다. 그래서 십일조의 정신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 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내 삶에서 ‘돈의 권세를 끊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특별히 선언하신 독특한 헌금입니다. (말 3:10-11)

재물의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적 재물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부터 이를 잘 습관화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다스림으로, 주께서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길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2. 내가 재물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재물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신다고 생각하시나요?
3. 오늘 말씀 중에 도전이 되거나 새롭게 결단한 부분이 있다면 목원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YouTube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

4월 3일 (다음 주일) 청년 예배 후, 교회에서

세례/입교식

- 4월 10일(주일) 예정
- 신청 : 오늘 (3월 27일)까지
- 교육: 4월 2일(토) 오후 2~4시, ZOOM
- 문답 : 4월 9일(토) 오후 2시, 교회

EM(Lifeway) 후원 기금 마련 세차

- 4/16 9AM~2PM, 교회 주차장
- Micah 6 (노숙자에게 식량 제공하는 식품 지원 복지 푸드뱅크) 후원
- 티켓 판매 (3주간)

생명의 삶 4월호 판매 (권당 5불)

지체동정

조은비 자매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기도모임 안내

금요 청년 기도 모임: 금요일 7시, 청년부 예배실
토요 무릎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
중보기도회(목요기도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당

라이드 도우미 지원

라이드 제공으로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 신청받습니다.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첫주제외)

정기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13호

MAR 27
2022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안혜진

anhyejin0714@gmail.com

새가족 팀장

하지수

jisujeon2015@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